



삼양옵틱스

RF 마운트 대응 세계 최초 AF 14mm F2.8 RF 발표

글로벌 광학 전문기업 삼양옵틱스(대표 황충현)가 RF 카메라 전용 세계 최초의 자동 초점 광각 14mm 렌즈 'AF 14mm F2.8 RF'를 출시했다. 광각 렌즈의 명가로 알려진 삼양옵틱스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알맞은 콤팩트한 사이즈의 렌즈에 113.9도의 초광각 렌즈의 화각과 뛰어난 광학 성능을 담았다.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의 기기 특성과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해 전용 설계했다. 이에 따라 플렌지 백 길이를 줄이고 경통의 길이와 무게 역시 낮춰 미러리스 카메라 유저들의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초점 조절용 렌즈의 무게를 최소화해 빠르고 정확하게 AF 성능을 누릴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렌즈 기기 디자인

수동 초점이 필요할 때나 미세한 조정을 위해 AF와 MF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별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다. 먼지와 습기에 강한 웨더시링 처리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렌즈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리어 필터 홀더도 마련되었다.

RF 마운트 대응 세계 최초 AF 14mm F2.8 RF

삼양옵틱스는 캐논 미러리스 RF 카메라에 대응하는 렌즈가 부족하다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RF 마운트용 수동 초점 렌즈 MF 14mm F2.8 및 MF 85mm F1.4를 먼저 출시했고 오는 11월 자동 초점 렌즈 AF 14mm F2.8 RF 판매를 개시한다. 지난 2016년 소니 FE 마운트를 시작으로 자동 초점 렌즈를 처음 선보인 삼양옵틱스는 불과 3년 만에 세계 최초 렌즈 출시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명실상부 글로벌 렌즈 업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캐논 EF 마운트, 니콘 F 마운트용 AF 렌즈를 출시했으며,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번 캐논 RF 마운트 대응 AF 렌즈까지 선보인다.

광각의 명가, 삼양옵틱스 기술을 담은 뛰어난 광학 성능

광각의 명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삼양옵틱스의 첫 RF 용 AF 14mm 렌즈는 총 10군 14매의 렌즈 구성으로 설계되었다. 비구면 렌즈 3매, 고굴절 렌즈 1매, 저분산 렌즈 2매 등, 총 6매의 특수 렌즈를 채용해 최소화된 왜곡과 이미지 중심부터 코너까지 뛰어난 화질로 113.9도의 광활한 시야를 즐길 수 있다. 또한 7매의 원형 조리개 날을 채용해 부드러운 빛망울과 날카로운 빛갈라짐을 선사한다.

가볍고 콤팩트한 미러리스용 AF 렌즈

RF 카메라 사용자는 14mm 단초점 화각을 즐기기 위해 캐논 EF 렌즈에 RF 어댑터를 착용해 미러리스 카메라에 맞지 않는 사이즈와 무게를 감수해야 했다. 새롭게 출시하는 삼양 AF 14mm F2.8 RF는

11월 글로벌 출시 예정

삼양 AF 14mm F2.8 RF 렌즈는 11월 중 전세계 출시 예정이며, 11월 초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될 예정이다. 제품 관련 더욱 상세한 정보는 삼양옵틱스 공식 사이트 및 여러 소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